

아마존 호실적발 위험 신호 복귀 및 소비심리 개선세 3대지수 상승

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yunjeong.kim@ls-sec.co.kr
RA 성현영 _hyseong@ls-sec.co.kr

아마존 AWS 고성장에 AI 투심 회복, 3 대지수 상승

- 미 증시는 DOW +0.53%, S&P500 +0.70%, NASDAQ +1.00% 상승. 임의소비재, 통신서비스, 에너지 강세, 소재, 유틸리티 약세
- MSFT 에 이어 아마존(+15.3%) 또한 클라우드 고성장세 보여주며 AI 수익화 및 과잉투자 우려 불식. 다만 DRAM ETF(-3.8%) 메모리반도체 밸류체인은 전거래일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

이란 유조선 공습에 국제유가 상승, 주말중 트럼프 대규모 이란공습 취소 발표

- 국제유가 상승 WTI \$85.4(+2.2%), Brent \$90.4(+1.5%). 이란 혁명수비대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시도 유조선 2 척 타격 소식과, 셰브론 CEO 의 중동 원유 공급 위협 확대 및 글로벌 원유 재고 감소에 대한 경계 발언 영향
- 주말중 미국의 대규모 공습이 예고되며 긴장 고조되었으나,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취소 발표로 일단 보류.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및 중동 국가들의 요청이 있었으며, 호르무즈 해협 완전개방 및 이란 핵위협 종식을 위한 기본 골자가 합의되었고 향후 신속한 합의 도출을 전제로 한 결정이라 주장

연준 FOMC 회의 횟수 축소 논의, 엔달러 당국 외환개입에 158 선 후퇴

- NYT 는 워시 연준의장이 지난 FOMC 에서 연 8 회 FOMC 회의 횟수 축소안을 검토, 관계자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고 보도. 개최 주기 변경시 약 45 년만의 체제 변화
- 한편, USD/JPY 158.15, 주간 -3.3% 2 년래 최대 하락폭. 15 년만에 마-일 공동 외환개입 통한 엔저 저지
- 7 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55.2 전월·컨센 상회, 2 개월째 개선세. 현재 경제여건 47.7→54.8, 향후 소비자지대 50.7→55.4 낙관. 1 년 기대인플레이션 4.6%→4.2%, 5 년 기대인플레이션은 3.3% 유지- 2Q 고용비용지수(ECI) QoQ +0.9% 컨센 상회, YoY +3.4% 컨센 하회. QoQ 기준 임금 +0.9%, 복리후생 등 +1.0%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NVO	노보노디스크	-8.8%	심혈관치료제 후보물질 질티베키맵 후기 임상 실패 소식에 주가 급락. 이에 매출의 핵심인 GLP-1 비만치료제 이외의 파이프라인으로 다각화하려는 시도에 제동이 걸렸으며, 심부전 및 급성 심근경색 환자 대상의 추가 임상 결과는 내년 상반기 발표 예정
MRNA	모더나	-5.4%	실적발표. 2분기 매출 컨센서스 상회했으나, 임상 3상 단계인 노로바이러스 백신이 중간분석에서 조기 성공 기준에 미달하며 추가 코호트 등록이 필요해지는 등 파이프라인 지연 우려에 주가 하락. EPS는 컨센서스 부합, 전년동기대비 적자 폭 축소
CVX	셰브론	+2.4%	실적발표. 셰브론과 엑손모빌(-1.0%)은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에 2분기 순이익 전년대비 급증한 실적 발표. 셰브론의 순이익은 약 +400%YoY 급증, 엑손모빌도 같은기간 2배 이상 급증. 다만 주가는 엇갈림. 셰브론의 매출 및 EPS는 시장 예상치 상회했으나, 엑손모빌은 매출 상회, EPS 하회 기록. 한편 셰브론측은 러시아 및 중동 지역의 분쟁으로 인한 정제 제품 공급 차질과 글로벌 정제 설비 부족으로 연료 가격의 상승 압력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경고
COIN	코인베이스	-10.6%	실적발표. 시장 예상치 하회하는 2분기 실적에 주가 급락. 크립토 윈터의 여파가 실적에 나타난 모습. 2분기의 거래 수수료 수익은 전년동기대비 감소, 이는 주로 개인 투자자의 암호화폐 현물 거래량이 38% 감소한 데 기인. 한편 사측이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과의 연동성을 탈피하기 위해 최근 출시한 여러 서비스 중 일부인 파생상품 및 예측 시장 거래의 성장이 이러한 부진을 일부 상쇄
ETN	이튼	+7.3%	실적발표. 2분기 매출 및 EPS 모두 시장 상회하고 연간 가이던스 상향 하며 주가 강세. 매출 사상 최대치 기록, 연간 조정 EPS 가이던스 중간값을 \$13.5로 상향 조정. 미주 지역 전기 부문이 AI 기반 데이터센터의 강력한 수요(수주잔고 약 307GW)를 바탕으로 마진 확대 견인